

르포르는 다뭇한 얘기 그린 실화소설 오늘 우리에게 갖는 미국의 의미 천착

— 「살아나는 임진강」 펴낸 오연호씨

이 책 그 사람

「말」지 기자 오연호(29)씨는 최근 철들고서부터 품어왔던 목은 소망 하나를 이뤘다.

‘학생운동 제3세대’의 대표적인 활동가로, 그 세대에겐 특명처럼 짊어지워졌던 과제 “우리에게 미국이란 무엇인가”에 모범생처럼 집요하게 매달려왔던 그는 이 운동가로서의 시대적 요구를 개인의 내밀한 꿈과 연결시켜 소설 한편을 펴냈다.

지난 4년여 동안 「말」지라는 진보적 대중잡지의 공인된 지면 안에서 그는 해방 이래 지금까지 한반도 남쪽에 주둔해 있는 ‘미국’의 존재 이유와 방식, 그 의미를 캐내어왔고, 그 비밀찾기의 ‘대중화’로 써왔던 글들을 모아 「식민지의 아들에게」 「더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마라」 등의 르포집을 묶어내기도 한 反美운동가이다. “현장취재를 하면서 깊이 들어갈수록 미국의 존재가 ‘거대한 바위’처럼 공포스럽게 다가와 학생때보다 더 철저한 반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는 이번에 내놓은 소설 「살아나는 임진강」(돌베개)을 통해 ‘반미문학가’ 로까지 자신의 역할을 넓혀놓고 있다.

이 소설은 지난 62년초 임진강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미군의 한국인 나무꾼살해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 사건은 당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전까지 일방적으로 미군에 유리하게 체결돼 있던 한미관계를 다소나마 바로잡는 ‘한미행정협정’을 맺게 한 계기가 되었으나 곧 일반인의 기억에서 까맣게 잊혀져버린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다. 임진강변의 작은 마을 운천리 사람들은 겨울이면 땀감이 없어 한때 그들의 고향이었으나 미군들이 주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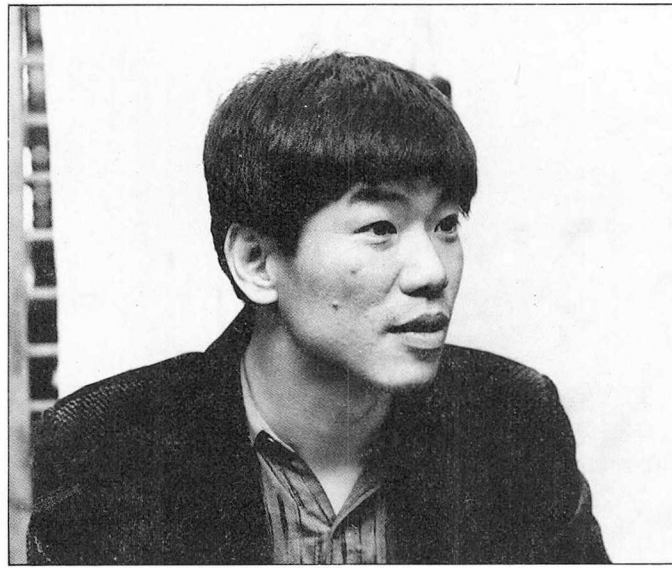
시작하면서 쫓겨나야 했던 강건너 옛고향의 숲으로 땀감용 갈대를 꺾으러 간다. 이들에게 “슬래키(좀도둑)보이”하며 수년래 空砲로 위협하곤 했던 미군들은 62년 겨울 ‘본때’를 보여준다며 땀감을 구하러온 남정네들을 쏘아 그중 두명을 사살해버린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 소설의 주인공 김순애의 아버지와, 임신 4개월의 젊은 아내를 둔 한씨 종가의 맏아들 한광길(오씨의 르포집 「식민지의 아들에게」 내지화보에 실려 있는 사진의 주인공)이다.

소설은 단지 ‘본보기’를 만들기 위해 한번 ‘해보인’ 미군의 행위가 그 희생물이 된 가족과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켰는가를 사건당시 열여덟이었던 김순애의 이후 마흔의 삶까지를 추적함으로써 담담하게 드러내보이고 있다. 실성해버린 어머니와 두 동생의 부양을 줄지에 떠맡아야 했던 순애는 아버지를 살해한 그 미군들의 부대에서 세탁일을 하는 참담함을 겪기도 하고 동생들을 이끌고 도시로 나와서는 술집으로, 식당으로 전전하면서 갖은 고생끝에 마흔에 이른다.

지난 86년 ‘애국 중·고생과 편지주고받기’ 사건, 일명 ‘의식화 편지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오씨는 그곳에서 글쓰기에 관한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이 소설적 미학과 어우러질 때 자칫 ‘사실은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게 될 수 있음을 감방동료(?)들이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기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소설의 형식을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되 ‘사실’의 현장성을 잃지 않는 ‘보고문학’의 장르를 새롭게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 이 소설이라는 것이다.

— 정혜옥 기자



금석문 토대로 한 초기 선종사 연구 나말려초 사회적 성격과의 관련 부각

—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낸 추만호씨

이 책 그 사람

신라말에서 고려초로 이어지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다. 한

나라의 시작과 끝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나말려초도 사회 전반에 걸쳐 격동기의 모습을 띤다. 그 전면 중 특히 禪宗의 부상은 가장 주목되는 사상사적 변화로, 바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 초기 선종사가 이뤄진다.

추만호씨(37, 우리불교문화연구소장)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오랜 역사를 지닌 불교사상사의 흐름 가운데 나말려초의 불교사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사학자다. 불교의 양대 지주인 교종과 선종을 비교해 볼 때, 선종에 대한 연구는 그 성격상 교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이 사실. 그에 따르면 “교종이 안정세를 누렸던 신라 중대 불교계의 구조 속에서 신라 하대에 새로운 사유방식을 내세운 선종의 종파 형성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점은 불교의 전래·수용·공인을 둘러싼 불교 初傳의 문제와 함께 깊이있게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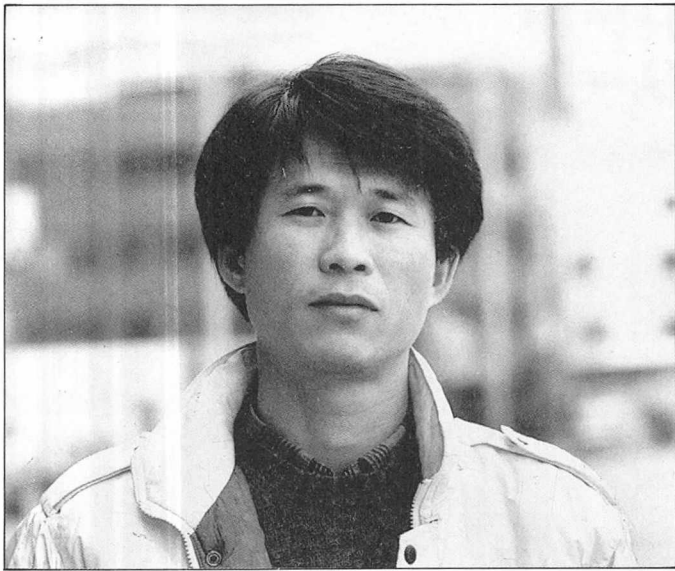
이런 의미에서 추만호씨가 최근 출간한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이론과실천)는 기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해석들을 제시한 이 방면의 노작으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책의 기본자료가 된 30개의 금석문은 현재 남아있는 전근대사의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것들인데, 탁본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직접 손으로 만져 확인할 만큼 사료의 철저한 고증이 돋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은, 새로운 사관과 역사학 방법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세대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의 연구방법론이다.

박사학위논문이 이 책의 근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리말에서 “일정 종파의 발전을 왕권 강화나 상층 지배집단 내의 세력갈등이라는 면으로만 접근해온 방법과 이 시기 선종의 전개가 빛은 실제와의 괴리”가 그간의 선종 연구를 지체시켜 왔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즉 이전까지의 불교사 연구는 사회의 거대한 흐름보다는 지배세력 중심의 설명에 치중함으로써 무리하게 작의적인 연구들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색채가 강한 불교와 같은 사상은 지배계급의 선호만으로는 그처럼 폭넓게 수용, 정착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따라서 그가 이 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나말려초의 선종의 사회적 특징이다. 신라하대에 이르러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한 지방민의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선종의 형성이 가능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신라말처럼 혼란기에는 사람들이 객관적 지표를 잃고 ‘주관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술연구서가 그러하듯이 이 책도 많은 각주와, 특히 한문 원전이 적잖이 인용돼 있다. 그러나 “평생을 공부하고 그만큼 책을 쓸 계획”인 추만호씨는 한글세대를 위한 쉬운 서술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고 한다. 원효처럼 1백여권의 저작물을 남길 수는 없었지만, 힘닿는 한 ‘해적질’이 아닌 ‘창조적 글쓰기’를 계속할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나말려초 5부작 중 첫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는 불교 이외에도 사상사 중심의 사학과 번역작업을 위한 한학연구에도 몰두하겠다고 밝힌다.

— 정소연 기자



민족영화의 역사적 맥락 추적한 시론 그동안의 영화사 서술에 전면적 비판

—「한국영화역사상의 I」 펴낸 이효인씨

이 책 그 사람

영화는 그 어떤 다른 형태의 대중예술보다 일시에 다수의 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성을 지닌다.

어느 시기나 권력을 잡은 이들이 영화매체를 장악하려 했음은 영화가 지닌 이러한 특성 때문이거니와 또한편 바로 그러한 이유로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연구하고 제작하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85년 '서울영화집단'에 참여, 영화운동에 발을 들여 놓은 후 8mm영화 「과량새」로 한차례 고초를 겪고는 오히려 “배도 막도 못하고 영화에 발목 묶어버렸다”는 이효인씨(32. 영화평론가)도 그들중의 한사람. 3년여의 충무로 경험을 거치기도 한 그는 그동안 줄곧 한국영화역사에 관심의 초점을 두어왔는데 그가 최근에 펴낸 「한국영화역사상의 I」(이론과실천)은 그의 그동안의 관심과 연구성과를 종합한 저서이자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씌어진 한국영화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한국영화역사를 이해하는 일은 영화연구자에게는 자기 연구의 좌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연구목적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획득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창작자에게는 이전 창작물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고 과학적인 방침을 세워 창작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면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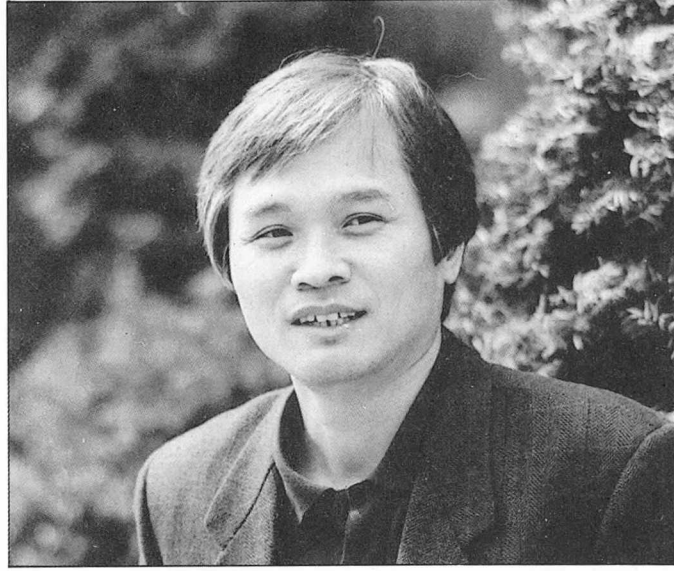
한국영화역사 이해의 필요성과 의의를 이렇게 요약하는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사회, 한국 민중과 깊은 사회적 관련을 맺고 있는 영화적 미학, 이른바 민족영화의 역사적 계통을 찾는 과정으로 자신의

영화연구를 위치짓는다. 그리고 이것은 1930년 전후 카프 영화운동과 해방직후의 민족영화운동, 그리고 1980년대에 시작된 영화운동의 운동적 방법론과 창작미학론을 찾는 일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활동사진이 유입된 때부터 1945년까지 우리영화를 다섯시기로 구분, 각 시기의 영화계의 상황과 작품, 주요 영화인과 그들의 활동 등을 각종 자료와 기존의 서술들을 꼼꼼하게 비교·분석하여 밝히고 있는 이 책에서 그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힘써야 했던 일은 이미 나와 있는 영화사 서술들에 대한 전면부정이었다고 기존의 영화사 서술들이 안고 있는 시대적 제약과 학문적 성과의 미약이라는 한계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들이 지닌 지나친 誤記와 이데올로기적 편협성과 주관성, 비과학적이고 몰가치적인 평가와 과장을 밝히고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국영화사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이를 위해 그는 이 책에서 초창기 한국영화역사를 통사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그 마다마다에 응여져 있는 주요 쟁점들과 사안들에 치밀하고 집요한 관심을 쏟는다.

“오늘날 한국 영화계가 처해있는 정체와 혼란의 뿌리를 양생시킨 시기로 보면 됩니다.” 초창기 한국영화역사를 이렇게 총평하는 그는 올바른 민족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건강한 의식을 소유한 영화꾼들의 양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박남정 기자



이땅의 어린이를 위한 시인의 창작동화 단순한 재미 벗어난 문학적 의의 돋보

—「아기참새 찌꾸」 펴낸 곽재구씨

이 책 그 사람

아이들의 호기심을 노린 ‘깃곳은’ 출판물들이 판을 치고, 선뜻 권할 만한 동화 한권이 아쉬운 우리에게, 역량 있는

시인이 내놓은 제대로 된 한편의 동화는 더없이 반가운 것이다.

암울했던 80년대초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로 시작되는 시 「사평역에서」를 발표해 낮은 시인 곽재구씨(39)의 첫 창작동화 「아기참새 찌꾸」(국민서관)는, 친숙한 텃새인 참새를 통해 세상살이의 소중함을 일러주는 작품.

“아버지의 직업란에 ‘시인’이라고 쓰는 아들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했다”는 그는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돌봐줄 시간이 없는 요즘 부모들이 아이 옆에 앉아 이 책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컴퓨터 강습도 피아노 레슨도 아닌 사랑이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초원의 개척자’란 뜻의 이름을 가진 참새 찌꾸는 그의 바로 그런 생각을 전해주는 대변자인 셈이다.

서울 한강변의 가로등 등지안에서 사는 이 책의 주인공 찌꾸는 아버지 찌뿌의 유언대로 초원을 찾아나서기 위해 큰새나 할 수 있는 기류타기를 배우기도 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경험을 하다가 도미와 결혼해 아들을 낳고 결국 초원으로 향한다는 줄거리로 엮여져 있다.

그러나 이 동화는 단순한 재미와 헛된 상상의 세계와는 거리가 있다. 아버지를 살려준 꼬마 영훈이, 자식과 남편을 잃은 미루이 엄마 등을 만나기도 하고, 사냥꾼과 싸우며 세상을 배우는 성장과정을 다룬 이

이야기 속에는 학생시위와 공해문제 같은 아이들도 알아둬야 할 사회문제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대중매체로 인한 언어공해에 물든 아이들에게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들려준다는 점이다. 주인공들의 이름은 물론 새들이 부르는 예쁜 동요에서 곽재구씨는 맛있는 우리말의 모범을 보여준다. 또한 참새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는 펍 새로운 경험도 선사한다. 그가 동화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던 꿈을 글로나마 전해주기 위해서다. 8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난 것은 지난 87년. 글쓰기와 가르치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그는 특히 시인으로서 더욱 힘들다는 전업작가의 길을 골랐다.

“광주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근대사를 아우를 서사시 「백두산」을 쓰고 싶었다”고 말하는 곽재구씨는, “작품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사실 박노해라는 시인의 출현에 자극을 받아 시인으로서의 자기 몫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한동안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학원강사로 나설까를 망설이던 작년에서야 겨우 안정을 찾았다는 곽재구씨는, 2년마다 한번씩 시집을 내야 한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년초가 돼야 새 시집을 낼 것 같다”고 말한다. 마흔이 다되어 얻은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출판된 이책의 후편을 구상중인 그는, “아름다움이 힘”이란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 우리의 소중한 시인임에 틀림없다.

— 최태원 기자